

사물인터넷 활성화... 일자리 67만명 매출 731조 증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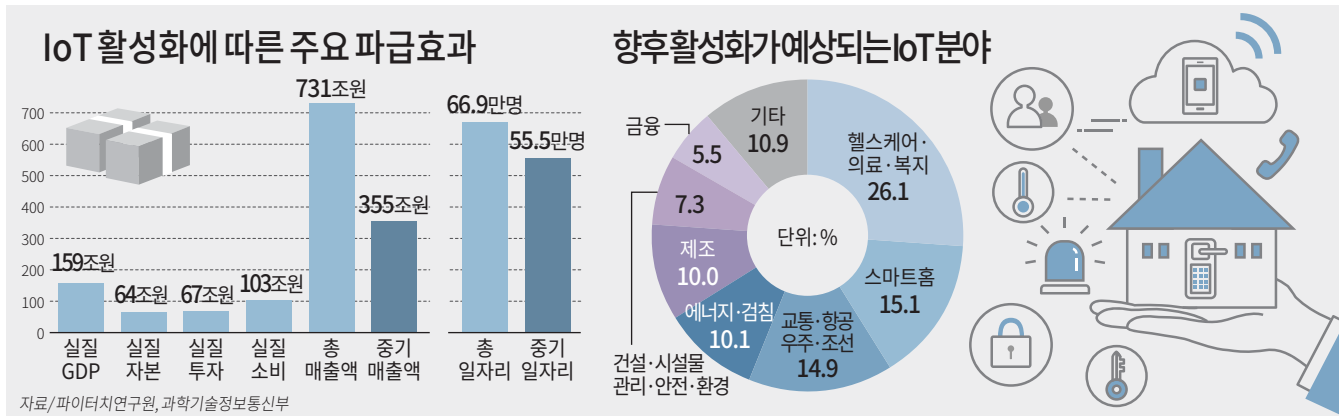
파이터치研·중기중앙회 보고서
중소 일자리 55.5만명 증가 예상
“공공이 IoT 플랫폼 제공해야”

사물인터넷(IoT)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욱 활성화하면 일자리, 국내총생산, 투자, 소비 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IoT 활성화 전과 후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일자리는 66만 9000명, 총 매출액은 731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각각 추산되면서다. 특히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총 일자리는 55만 5000명, 총 매출액은 355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IoT 활성화 과정에서 IoT 플랫폼은 공공이 제공하고, IoT 애플리케이션 사업은 국민들에게 개방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파이터치연구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분석해 3일 내놓은 ‘사물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경



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oT 산업 실태조사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과 2019년 사이 IoT 사업체수는 1212개에서 2313개로 약 2배, 종사자수는 5만7000명에서 29만6000명으로 약 4.7배, IoT 서비스 매출액은 5029억원에서 2조8677억원으로 약 5.7배 늘었다.

IoT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들을 상호 연결해 하나의 사물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IoT를 통해 이들 기술의 융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의료·헬스케어 ▲스마트홈 ▲자동차·교통 ▲항공·우주 ▲에너지·검침 등의 분야가 대표적인 유망 IoT 서비스로 꼽힌다.

분석 결과 IoT를 활성화하면 실질GDP 159조원, 총실질자본 64조원, 총실질투자 67조원, 총실질소비 103조원이 각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 일자리와 총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다.

이는 IoT 활성화→IoT 서비스 수요 증가→IoT 서비스 가격 상승→IoT 서비스 생산량 증가→IoT 플랫폼기업의 노동·자본·AI로봇·IoT 앱 수요량(투입요소) 증가→IoT 앱 가격 상승→IoT 앱 생산량 증가→IoT 앱 기업의 노동·AI로봇 수요량(투입요소) 증가 등의 연쇄 파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동 연구자인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IoT 분야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돼 있지 않아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

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금의 IoT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물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중앙통제센터로 모으는 방식이다.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동시에 집중돼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있는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연구책임자인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IoT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운영적 측면에서 개방형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하고, 기술적 측면에선 ‘엣지(Edge) 컴퓨팅’ 기술을 도입해야한다”며 “아울러 개방형 IoT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IoT 플랫폼은 공공에서 제공하면서, IoT 애플리케이션 사업은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에 확보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 사업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1회용 컵 없는 제주 조성 앞장

내달부터 스타벅스 4곳서 시범 운영
10월까지 제주도 내 모든 매장 확대

CJ대한통운이 연간 500만개의 1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 시범사업에 물류기업 대표로 참여한다.

3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도 용담삼동에 위치한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DT점에서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한정애 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 한국공항공사 손창완 사장, CJ대한통운 윤진 부분장, 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 SK텔레콤 윤풍영 부사장, 행복커넥트 유용환 이사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는 소비자가 테



3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도 용담삼동에 위치한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DT점에서 ‘1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크아웃을 할 때 보증금 1000원을 내면 다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한다. 고객이 음료를 마시고 난 이후 매장, 공항 등에 설치한 회수기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회수된 컵은 세척, 소독해 매장에서 재사용된다. 올 7월부터 4곳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시범 운영하며 10월까지 제주도 내 모든 매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도 전매장으로 확대 운영 시 1회용 컵 사용량을

연간 약 500만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회용 컵은 매장→회수기→세척장→폴필먼트센터→매장 순서로 순환된다. CJ대한통운은 이 과정에 필요한 보관, 회수, 배송 등의 폴필먼트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소비자가 회수기에 컵을 반납하면 CJ대한통운이 회수기가 있는 장소를 방문해 회수하고 세척장으로 배송한다.

/김승호 기자

공영쇼핑, 지역 우수 농축산물 판로 확대

농식품법인연합회와 업무 협약
‘공영라방’서 우수 농축산물 판매

공영쇼핑이 농축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추가로 나선다.

공영쇼핑은 지난 2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와 지역 우수 농축산물과 향토식품 발굴 및 홍보를 위해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우수 농축산물의 부가 가치 높이는 가공식품 제조업인 발굴 지원 ▲국내산 농축산물과 중소제조업체와의 성장모델 개발 ▲우수 농축산물과 향토식품의 발굴 및 우수 사례 확산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공영쇼핑은 우선 농식품법인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우수 농축산물과 향토식품을 ‘공영라방’에



공영쇼핑 대표 권한대행 박진상 경영지원본부장(왼쪽)이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영쇼핑

서 판매한다.

공영쇼핑은 지난 3월에 모바일라이브커머스인 공영라방을 오픈함에 따라 모바일커머스에 적합한 농식품법인연합회의 24개 제품을 선정,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생산현장 또는 바로마켓 장터 등 협력이 직접 출연, 판매해 현장감을 살리는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스마트공장 재직자 심화과정 모집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1년 제1차 스마트공장 재직자 심화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3일 중진공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생은 총 24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4일부터 이달 18일까지다.

과정은 온·오프라인 교육과 현장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스마트공장 이론과 실습교육을 바탕으로 기업현장에서 직접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교육생 주도형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교육은 3개월간 진행된다. 세부적으

로는 ▲오리엔테이션(6시간) ▲온라인 이론교육(48시간)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활용한 오프라인 실습교육(16시간) ▲현장 프로젝트(80시간) ▲결과보고회 및 수료식(10시간)으로 총 160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다.

중진공은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에서 진행되는 현장프로젝트 비중을 대폭 확대(56→80시간)하는 등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스마트공장 재직자 심화과정 1차 연수 참여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교육신청서를 내려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 하드웨어

이케아와 인테리어 서비스

유진그룹 계열인 유진홈센터의 집수리 전문 브랜드 에이스 하드웨어가 이케아와 손잡고 인테리어 설치 서비스를 확장해 본격화한다.

유진홈센터는 3일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이케아 코리아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목실, 주방 설치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에이스 하드웨어는 목실, 주방, 중문 설치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노하우와 자사의 설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이케아 주방 및 목실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한솔제지,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서 수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 받아

한솔제지의 친환경 종이용기 제품이 호평을 받았다.

한솔제지는 자사의 폴리에틸렌(PE)-Free 제품 ‘테라바스(Terravas)’(이미지)가 ‘제15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패키징 산업 시상식이다. 국내 패키징 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에 기여한 제품과 디자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가 15회째다.

한솔제지는 지난해에도 고차단성 친

환경 종이포장재 프로테고(Protego)가 산자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테라바스의 수상은 종이 소재에 대한 한솔제지의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패키징 산업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자연을 담은 용기’라는 뜻의 테라바스는 최근 친환경 트렌드에 맞춘 PE Free 기술을 활용한 식품용기 제품이다. 플라스틱 계열 코팅제를 대체해 한솔제지가 자체 개발한 친환경 수성코팅액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종이 소재의 강점인 재활용성과 생분해성은 물론, 우수한 내수성과 내열성까지 갖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 용기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다.

/김승호 기자